

Session 18 Jesus' Public Confession of His Deity (Jn. 7-10)

제 18 강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 (요 7-10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In this passage, Jesu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abernacles and the Feast of Dedication in autumn and winter of AD 29 (Jn. 7-10), on His third visit to Jerusalem. In Jesus, we see the fulfillment of what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a shadow (Jn. 7). Hostility continued to grow against Him (Jn. 7:19, 30, 32, 44; 8:59; 10:39) as He openly declared His deity (Jn. 8). He revealed Himself as the light of the world (Jn. 8-9) and the good shepherd, then declared His deity (Jn. 10).

예수님은 이 본문 구절에서 AD 29 년의 가을과 겨울에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요 7-10 장), 이것은 그분의 세 번째 방문이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초막절이 의미하던 것의 성취를 볼 수 있다 (요 7 장).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에 따라 (요 8 장), 그분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요 7:19, 30, 32, 44; 8:59; 10:39). 그분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고 (요 8-9 장),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신성에 대해 선포하셨다 (요 10 장).

¹*After these things [the events of John 6] Jesus walked in Galilee; for He did not want to walk in Judea, because the Jews sought to kill Him.* ²*Now the Jews' Feast of Tabernacles was at hand.* (Jn. 7:1-2)

¹그 후에 [요 6 장의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²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 7:1-2)

- B. The Feast of Tabernacles celebrated the harvest and commemorated Israel's journey for 40 years in the wilderness (Lev. 23:33-43). They built temporary shelters out of branches and leaves and lived in them for the week to remember how their forefathers lived in the wilderness—thus the name the Feast of Booths or Tabernacles (Lev. 23:42). According to Josephus, this feast was the most popular of the three feasts that Israel was required to attend (Josephus, 8:4:1).

초막절은 추수를 기념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40 년의 여정을 기리는 절기다 (레 23:33-43). 그들은 선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임시 처소를 지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을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레 23:42).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대중적인 절기였다고 한다 (요세푸스, 8:4:1).

⁴²*You shall dwell in booths for seven days. All who are native Israelites shall dwell in booths...* (Lev. 23:42)

⁴²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레 23:42)

- C. Two main themes associated with this feast are water and light—Jesus made reference to the water-drawing and lamp-lighting rituals (Jn. 7:37-39; 8:12). The feast ran for seven days (in September-October), ending with a celebratory gathering on the eighth day, 22 Tishri (Lev. 23:36).

이 절기와 연관된 두 가지 주요한 주제는 물과 빛이다- 예수님이 물 길는 것과 등불 비추는 예식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요 7:37-39; 8:12). 이 절기는 7 일 동안 지속되었고 (9-10 월에), 8 일째 되는 날, 티쉬리 22 일에 기념 예식 모임으로 끝나쳐진다 (레 23:36).

II. JESUS WENT TO JERUSALEM (JN. 7:2-44)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요 7:2-44)

- A. Jesus' brothers urged Him to go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abernacles to gain a larger following (Jn. 7:2-10). Jesus responded by explaining it was not the Father's perfect timing for Him to go yet. They could go to the feast at any time because they were not on a divinely-ordered schedule. Jesus left for Jerusalem sometime after His brothers so to avoid drawing attention to Himself before the right time. The authorities in Jerusalem were seeking to arrest Him (Jn. 7:1).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더 많은 제자들을 얻으려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충고했다 (요 7:2-10).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에 가는 것이 아직 아버지의 완벽한 때가 아님을 설명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다. 예수님은 온전한 때가 되기 전에 주목받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형제들이 떠난 뒤에야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고 있었다 (요 7:1).

²Now the Jews' Feast of Tabernacles was at hand. ³His brothers therefore said to Him, "Depart from here and go into Judea, that Your disciples also may see the works that You are doing..." ⁵For even His brothers did not believe in Him. ⁶Then Jesus said to them, "My time has not yet come, but your time is always ready... ⁸I am not yet going up to this feast, for My time has not yet fully come." ⁹...He remained in Galilee. ¹⁰But when His brothers had gone up, then He also went up to the feast, not openly, but as it were in secret. (Jn. 7:2-10)

²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³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⁵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⁶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⁸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⁹...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¹⁰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요 7:2-10)

- B. Many people in the city were debating about whether Jesus was a good or evil man (Jn. 7:11-12).

성 안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다 (요 7:11-12).

¹¹Then the Jews sought Him at the feast, and said, "Where is He?" ¹²And there was much complaining among the people concerning Him. Some said, "He is good"; others said, "No, on the contrary, He deceives the people." (Jn. 7:11-12)

¹¹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¹²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요 7:11-12)

- C. In the middle of the seven-day feast, Jesus taught openly in the temple. He taught that His knowledge about God came directly from God, not from receiving formal training. The way the rabbis commonly settled theological issues was by debating each other. But Jesus taught that the key to understanding if He was from God was related to their willingness to obey God.

7 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형식적인 정규 교육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랍비들이 흔히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은 서로 논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대해 이해하는 것의 열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셨다.

¹⁴Now about the middle of the feast Jesus went up into the temple and taught. ¹⁵And the Jews marveled, saying, “How does this Man know letters, having never studied?” ¹⁶Jesus answered them and said, “My doctrine is not Mine, but His who sent Me. ¹⁷If anyone wills to do His will, he shall know concerning the doctrine, whether it is from God... Why do you seek to kill Me?” ²⁰The people answered and said, “You have a demon. Who is seeking to kill You?” (Jn. 7:14-20) ¹⁴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¹⁵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¹⁶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¹⁷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²⁰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요 7:14-20)

- D. Jesus taught on the activity of the Spirit (Jn. 7:37-44). The ritual with the water spoke of messianic blessings. On each of the mornings of the feast the high priest led a procession taking water from the Pool of Siloam to the temple courtyard. The water was poured out at the morning sacrifice, representing God's provision of water flowing from the rock in the wilderness, the promise of the Spirit, and blessing of rain under Messiah. Jesus claimed to be the fulfillment of what the feast of Tabernacles spoke—pointing to Himself to the rock in the wilderness (1 Cor. 10:4).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가르치셨다 (요 7:37-44). 물에 대한 의식은 메시아의 축복들을 설명한다. 이 절기 기간에 매일 아침마다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 뜰까지 물을 길러오는 행렬을 이끌었다. 이 물은 아침 희생 제사에 부어졌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주신 하나님의 공급,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비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의미가 성취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광야의 반석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고전 10:4).

³⁷On the last day, that great day of the feast, Jesus...cried out, saying, ³⁸“...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out of his heart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³⁹But this He spoke concerning the Spirit, whom those believing in Him would receive... (Jn. 7:37-39)

³⁷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³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³⁹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7:37-39)

⁴*They drank of that spiritual Rock that followed them, and that **Rock was Christ.** (1 Cor. 10:4)*

⁴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시라 (고전 10:4)

III. THE WOMAN CAUGHT IN ADULTERY (JN. 8:1-11)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 8:1-11)

A. Jesus showed mercy to the woman caught in adultery (Jn. 8:1-11).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요 8:1-11).

²...*He came again into the temple, and all the people came to Him...*³*Then the scribes and Pharisees brought to Him a woman caught in adultery. And when they had set her in the midst, ⁴they said to Him,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adultery, in the very act. ⁵Now Moses, in the law, commanded us that such should be stoned. But what do You say?" ⁶This they said, testing Him, that they might have something of which to accuse Him. But Jesus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with His finger... ⁷He raised Himself up and said to them, "He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throw a stone at her first." ⁸And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⁹Then those who heard it, being convicted by their conscience, went out one by one... Jesus was left alone, and the woman standing in the midst. ¹⁰...He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ose accusers of yours? Has no one condemned you?" ¹¹She said, "No one, Lord." And Jesus said to her, "Neither do I condemn you; go and sin no more." (Jn. 8:2-11)*

²...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³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⁴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⁵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⁶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⁷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⁸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⁹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¹⁰...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¹¹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 8:2-11)

B. Jesus mentioned passages in the law of Moses that required two witnesses of the sin to cast the first stone (Deut. 17:7). Jesus, in saying "he who is without sin," meant the sin of adultery. He did not imply that the accusers needed to be sinless, but innocent of the particular sin of the accused.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구절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죄인을 돌로 치려면 그 죄에 대해 증언할 두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었다 (신 17:7).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고 하신 것은 간음의 죄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고소하는 자가 죄가 전혀 없는 자여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고소하는 특정한 죄에 대해서 고소인이 무죄여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 C. Jesus took the place of her advocate or defense attorney (1 Jn. 2:1).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according to the law to condemn her. Jesus was not an eyewitness and could not legally accuse her, so He let her go. Jesus was not saying it was okay in the New Testament to commit adultery.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한 변호인 혹은 피고측 변호사 역할을 하셨다 (요일 2:1, 개역개정에서는 대언자로 번역됨). 그 상황은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정죄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예수님은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여인을 고소할 수 없으므로 그 여인을 놓아 주셨다. 예수님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는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IV. JESUS, THE LIGHT OF THE WORLD— THE ETERNAL GOD (JN. 8:12-59)

예수님, 세상의 빛- 영원하신 하나님 (요 8:12-59)

- A. Jesus' *light of the world* message spoken in the temple (Jn. 8:12-59): Isaiah predicted that Messiah would be a light to the nations (Isa. 49:6; Isa. 60:1-3). At the Feast of Tabernacles, priests lit three large torches on the lampstand in the temple precincts. People celebrated with dancing and song.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메시지가 성전에서 선포되었다 (요 8:12-59): 이사야는 메시아가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 49:6; 사 60:1-3). 초막절에 제사장들은 성전 구역에 있는 등잔대에 세 개의 커다란 화에 불을 붙였다.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축제를 즐겼다.

¹²Jesus spoke to them again, saying,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who follows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have the light of life."**¹⁴“... My witness is true, for I know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 am going...”¹⁵You judge according to the flesh...” (Jn. 8:12-15)

¹²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¹⁴...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¹⁵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요 8:12-15)

- B. The light of Jesus will illuminate the New Jerusalem during the millennial kingdom (Rev. 21:23).

예수님의 빛은 천년왕국 시대에 새 예루살렘을 비출 것이다 (계 21:23).

²³The city had no need of the sun...for the glory of God illuminated it. The Lamb is its light. (Rev 21:23)

²³그 성은 해...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 21:23)

- C. Jesus taught about His coming from heaven and their need to believe in Him (Jn. 8:21-30).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그분을 믿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요 8:21-30).

²³*He said..., "You are from beneath; I am from above...²⁴if you do not believe that I am He, you will die in your sins."²⁵Then they said to Him, "Who are You?" ...²⁸Then Jesus said to them, "When you lift up the Son of Man,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He..." (Jn. 8:23-28)*

²³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²⁴...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²⁵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²⁸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 줄을 알고... (요 8:23-28)

- D. **I am:** Jesus was declaring that He is the God who revealed Himself to Moses as "I am" or as the One who is eternally self-existent (Ex. 3:13-15; Isa. 41:4; 43:10, 13, 25; 46:4; 48:12).

나는...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스스로 있는 자," 혹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다 (출 3:13-15; 사 41:4; 43:10, 13, 25; 46:4; 48:12).

- E. **Lift up:** Jesus refers to His crucifixion as the way to His glorification (Jn. 3:14; 12:23). After His crucifixion, the Father exalted Him, sending the Spirit, and many then believed in Him (Acts 2-4).

든 후에: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임을 말씀하셨다 (요 3:14; 12:23).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성령을 보내셨으며,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행 2-4 장).

- F. Jesus elaborated on His deity and on His relationship to the Father (Jn. 8:31-59). He continued to teach in the temple. The Jews insisted that they were children of Abraham and that God was their Father. Jesus insisted that their father was the devil who wanted to kill Jesus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다 (요 8:31-59). 그분은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라고 하셨다.

³⁹*Jesus said to them, "If you were Abraham's children, you would do the works of Abraham."⁴⁰But now you seek to kill Me...⁴¹They said to Him, "We were not born of fornication; we have one Father—God."⁴²Jesus said to them,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love Me...*

⁴³*Why do you not understand My speech? Because you...⁴⁴are of your father the devil..." (Jn. 8:39-43)*

³⁹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⁴⁰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⁴¹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⁴²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⁴³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 8:39-43)

- G. The hostility of the authorities towards Jesus (Jn. 8:47-59): Jesus declared that their father was the devil; they answered by saying that Jesus was demon possessed (Jn. 7:20; 8:52; 10:20).

예수님을 향한 지도자들의 적개심 (요 8:47-59): 예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 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다 (요 7:20; 8:52; 10:20).

⁴⁸Then the Jews answered and said to Him, “Do we not say rightly that You...have a demon?”⁴⁹Jesus answered, “I do not have a demon; but I honor My Father...⁵¹if anyone keeps My word he shall never see death.”⁵²Then the Jews said to Him, “Now we know that You have a demon! Abraham is dead...and You say, ‘If anyone keeps My word he shall never taste death.’⁵³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Abraham, who is dead?”...⁵⁷The Jews said to Him, “You are not yet fifty years old, and have You seen Abraham?”⁵⁸Jesus said to them, “...before Abraham was, I AM.”⁵⁹Then they took up stones to throw at Him; but Jesus hid Himself and went out of the temple... (Jn. 8:48-59)

⁴⁸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⁴⁹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⁵¹...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⁵²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⁵³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 ⁵⁷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⁵⁸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⁵⁹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 8:48-59)

V. JESUS HEALED A BLIND MAN (JN. 9:1-41)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다 (요 9:1-41)

- A. On the Sabbath while in Jerusalem, Jesus healed a man who was born blind (Jn. 9:1-41). The theme of Jesus as the Light of the World is here elaborated further from John 8:12. When the Light of Jesus shines forth, people receive physical and/or spiritual sight. There are more testimonies in the four gospels of Jesus healing blindness than any other category of healing (Mt. 9:27-31; 12:22-23; 15:30-31; 21:14; Mk. 8:22-26; 10:46-52; Lk. 7:21-22).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다 (요 9:1-41).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가 여기 요한복음 8:12 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의 육신적인 혹은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눈먼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다 (마 9:27-31; 12:22-23; 15:30-31; 21:14; 막 8:22-26; 10:46-52; 눅 7:21-22).

¹Now as Jesus passed by, He saw a man who was blind from birth. ²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³Jesus answer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revealed in him... ⁵I am the light of the world.”⁶...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clay with the saliva; and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⁷And He said to him,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 So he went and washed, and came back seeing... (Jn. 9:1-7)

¹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²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³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⁵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⁶...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⁷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 9:1-7)

- B. Some assume that there is always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s sickness and their sin. Sin lies behind all the pain and evil in our fallen world, but the connection between it and an individual's sin and failure is not always immediate, observable, or even existent. God permitted this man's blindness to display His miracle-working power and compassion in his life.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질병과 그들의 죄 사이에는 언제나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죄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악의 배후에 있지만, 개인의 죄와 질병의 관계, 혹은 개인의 죄와 실패의 관계는 항상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판단 가능한 것도 아니며 실제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을 허락하셔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과 긍휼을 나타나도록 하셨다.

- C. The Pharisees questioned the man who was healed (Jn. 9:13-23). His parents were afraid of being excommunicated from their synagogue.

바리새인들은 고침 받은 그 사람에게 질문했다 (요 9:13-23). 그의 부모는 자신이 속한 회당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¹⁷They said to the blind man again, "What do you say about Him because He opened your eyes?" He said, "He is a prophet." ¹⁸But the Jews did not believe...that he had been blind an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called the parents of him who had received his sight. ¹⁹And they asked them, saying, "Is this your son...? How then does he now see?" ²⁰His parents answered them... "We know that...he was born blind; ²¹but by what means he now sees we do not know...He is of age; ask him..." ²²His parents said these things because they feared the Jews, for the Jews had agreed already that if anyone confessed that He was Christ, he would be put out of the synagogue. (Jn. 9:17-22)

¹⁷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¹⁸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¹⁹이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²⁰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²¹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 ²²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요 9:17-22)

- D. Jesus found the previously-blind man after the Pharisees excommunicated him (Jn. 9:35-41).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퇴출당한 그 눈멀었던 자를 찾으셨다 (요 9:35-41).

³⁵Jesus heard that they had cast him out; when He had found him, He said to him,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God?" ³⁶He answered and said, "Who is He, Lord, that I may believe in Him?" ³⁷And Jesus said to him, "You have both seen Him and it is He who is talking with you." ³⁸Then he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ed Him. ³⁹And Jesus said,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that those who do not see may see, and that those who see may be made blind." ⁴⁰Then some of the Pharisees who were with Him heard these words, and said to Him, "Are we blind also?" ⁴¹Jesus said to them, "If you were blind, you would have no sin; but now you say, 'We see.' Therefore your sin remains." (Jn. 9:35-41)

³⁵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³⁶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³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³⁸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³⁹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⁴⁰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⁴¹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 9:35-41)

- E. Jesus came to save people, but in doing so He passed judgment on those who refuse His kindness (Jn. 3:17-21, 36; 12:47). Jesus was referring to Isaiah 6:10. He exposed the spiritual blindness of some so they might see their need and humble themselves by turning to Jesus to receive spiritual sight. But manifestations of His power cause those who rebel against Him to become more hardened in their heart. The light of Jesus causes some to see, while it hardens and blinds other.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분의 자비하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요 3:17-21, 36; 12:47). 예수님은 이사야 6:10 절의 말씀을 언급하셨다. 그분은 영적으로 눈먼 것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영적인 시력을 얻게 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마음은 더 강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빛은 어떤 사람들의 눈을 볼 수 있게 하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은 강박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만든다.

VI. JESUS IS THE DOOR AND THE GOOD SHEPHERD—THE GOD-MAN (JN. 10:1-42)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시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 (요 10:1-42)

- A. Jesus declared that He was the Door and the Good Shepherd of His people (Jn. 10:1-21). The previously-blind man had just been excommunicated from the synagogue (Jn. 9:34) and received into Jesus' sheepfold. Jesus, as the Good Shepherd, found him and brought him into the true fold. John 10 continues in the theme of John 9, when Jesus brought the man He healed into God's family.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백성들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다 (요 10:1-21). 이 눈멀었던 자는 회당에서 곧 퇴출되었지만 (요 9:34) 예수님의 양의 우리로 들어오게 되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를 진정한 무리 가운데로 이끌어오셨다. 요한복음 10 장은 9 장의 주제를 이어가는데,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신 자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¹“Most assuredly...he who does not enter the sheepfold by the door...is a thief and a robber. ²But he who enters by the door is the shepherd...³To him the doorkeeper opens...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⁴the sheep follow him, for they know his voice...”⁶Jesus used this illustration,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e things which He spoke to them. (Jn. 10:1-6)

¹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절도며 강도요 ²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³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⁶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 10:1-6)

- B. Jesus used the illustration of “good shepherd” to contrast Himself with the bad shepherds who were misleading Israel. There were many Old Testament warnings to Israel’s leaders to avoid being false shepherds (Jer. 23:1-4; 25:32-38; Ezek. 34). The Lord was Israel’s true shepherd (Ps. 23:1; 80:1).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하는 악한 목자들과 그분 자신을 대조시키신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거짓 목자가 되는 것을 피하라는 경고가 많이 있다 (렘 23:1-4; 25:32-38; 겔 34 장). 주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시다 (시 23:1; 80:1).

- C. Jesus spoke of sheep in a “fold” or sheep pen with a fence and walls and only one door. The thieves and robbers referred to the religious authorities in Jerusalem who led the people for selfish gain. The “doorkeeper” spoke of the man who was responsible to protect the sheep from their enemies. They were leaders like Moses, David, the godly kings,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양들, 혹은 울타리와 벽이 있고 문이 오직 하나인 양을 가두는 우리 대해 말씀하셨다. 절도와 강도들은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인도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 “문지기”는 양들을 천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말한다. 이들은 모세, 다윗, 그리고 경건한 왕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지도자들이었다.

- D. Jesus explained His illustration (Jn. 10:7-18). Jesus is the Door into the kingdom of God (Jn. 10:7; 14:6). The thieves and robbers speak of wicked leaders (Jn. 10:1) over God’s people who are merely “hired” hands. They serve the sheep with an eye on enriching their position and for what they can get out of it. A hireling always flees when trouble and danger come. False shepherds are motivated by Satan who comes to kill, steal, and destroy the life of God’s people (Jn. 10:10).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다 (요 10:7-18).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시다 (요 10:7; 14:6). 절도와 강도들은 “삯을 받고 일하는” 자들로, 악한 지도자들을 말한다 (요 10:1). 그들은 출세하려고 양들을 돌보는데, 양들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삯꾼들은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 버린다.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죽이고 흠치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그러한 것처럼) 오는 것이다 (요 10:10).

⁷Then Jesus said to them again, “Most assuredly, I say 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¹⁰The thief does not come except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that they may have it more abundantly. ¹¹“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gives His life for the sheep. ¹²But a hireling...sees the wolf coming and leaves the sheep... ¹³The

hireling flees because...he does not care about the sheep...¹⁵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¹⁶And other sheep I have which are not of this fold; them also I must bring, and they will hear My voice; and there will be one flock and one shepherd. ¹⁷“Therefore My Father loves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¹⁸No one takes it from Me, but I lay it down of Myself. I have power to lay it down, and I have power to take it again”... ³⁰I and My Father are one.” (Jn. 10:7-18, 30)

⁷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¹⁰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¹¹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¹²샅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¹³... 그가...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¹⁵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¹⁶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¹⁷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¹⁸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³⁰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7-10, 30)

- E. **Power to take it up again:**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are each fully involved with every work of God—creation, the incarnation, healing miracles, the atonement, the resurrection (Jn. 10:18).

다시 얻을 권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 각위의 하나님이 충만히 참여하고 계신다- 창조, 성육신, 치유의 기적들, 대속, 부활 (요 10:18)

1. The three persons are each fully involved with every work of God—creation, the incarnation, healing miracles, the atonement, the resurrection (Jn. 10:18), etc.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 충만히 참여하고 계신다- 창조, 성육신, 치유의 기적들, 대속, 부활 (요 10:18) 등

2. Jesus and the Father are one in their action—in context here it is in keeping His sheep safe. There is one God who forever dwells in three distinct Persons who are coequal as divine persons.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each fully possess all of God’s attributes. Each person is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function and authority in their relationship and work. Each person’s work is unified, fully engaged with, and interdependent on the others’ work.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하심에 하나되신다- 이 구절에서는 그분의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이다.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동등하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을 충만히 갖고 계신다. 각위의 하나님은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 기능과 권위가 서로 다르시다. 하나님의 각 위격의 사역은 연합되어 있고, 충만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사역 가운데 상호의존적이다.

- F. Jesus publicly declared in Jerusalem that He was Messiah and was God (Jn. 10:22-30).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다 (요 10:22-30).

²²Now it was the Feast of Dedication in Jerusalem, and it was winter. ²³And Jesus walked in the temple, in Solomon's porch. ²⁴Then the Jews...said to Him, "How long do You keep us in doubt? If You are the Christ, tell us plainly." ²⁵Jesus answered them, "I told you, and you do not believe. The works that I do in My Father's name, they bear witness of Me..." ²⁷My sheep hear My voice...and they follow Me. ²⁸And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either shall anyone snatch them out of My hand. ²⁹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and no one is able to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³⁰I and My Father are one." (Jn. 10:22-30)

²²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²³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²⁴유대인들이...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²⁵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²⁷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²⁸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²⁹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³⁰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22-30)

1. The Feast of Dedication is known as Hanukkah. To prove that none can snatch His sheep out of His hand (Jn. 10:29), Jesus spoke of the Father's involvement in protecting the sheep.

수전절은 하누카로도 알려져 있다. 어느 누구도 양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어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 10:29),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여하고 계심을 말씀하신다.

2. They asked Jesus for a "plain" statement about His identity.

그들은 예수님께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평범한" 말씀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3. Declaring His oneness with the Father (Jn. 10:30) was the high point in His teaching. Jesus is much more than a mere man—He is the God-Man who is fully God and fully Man.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심(요 10:30)에 대한 말씀은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부분이였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면서 또한 온전한 사람이신 분이다.

- G. The Jews wanted to stone Jesus for declaring that He was God's Son (Jn. 10:31-39).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 (요 10:31-39).

³¹Then the Jews took up stones again to stone Him... ³³saying, "For a good work we do not stone You, but for blasphemy, and because You, being a Man, make Yourself God." ³⁴Jesus answered, "...³⁷If I do not do the works of My Father, do not believe Me;³⁸ but if I do, though you do not believe Me, believe the works, that you may know...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in

Him.” ³⁹*Therefore they sought again to seize Him, but He escaped out of their hand. (Jn. 10:31-39)*

³¹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³³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³⁴예수께서 이르시되... ³⁷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³⁸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³⁹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 10:31-39)

- H. Jesus left Jerusalem as the result of the increased hostility against Him (Jn. 10:40-42). Jesus went to Perea,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River, where the Jewish rulers had no authority to pursue Him.

예수님은 그분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증가하자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요 10:40-42).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페레아로 가셨는데, 그곳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잡을 권한이 없는 곳이었다.

⁴⁰*And He went away again beyond the Jordan [Perea]...and there He stayed. ⁴¹Then many came to Him and said, “John performed no sign, but all the things that John spoke about this Man were true.” ⁴²And many believed in Him there. (Jn. 10:40-42)*

⁴⁰다시 요단 강 저편 [페레아]...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⁴¹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⁴²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 10:40-42)

- I. Many people in Perea believed in Jesus—I assume Jesus declared His deity to them as He did in Jerusalem. They understood that Jesus fulfilled what John the Baptist had taught about Him.

페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분의 신성에 대해 선포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친 바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